



BAUME & MERCIER
MAISON D'HORLOGERIE GENEVE 1830

Clifton Club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두 개의 새로운 모델: 현대의 여행가들을 위한 GMT 버전 및 세련된 네오 레트로 스타일의 브론즈 오토매틱 버전

올해 Clifton Club 컬렉션은 두 가지 새로운 오토매틱 시계를 선보입니다. 여행과 모험을 위해 제작된 이 두 개의 모델은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동시에 우아하게 재해석된 스포티한 감각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새로운 시계에는 뛰어난 성능, 일상에 편안하게 녹아드는 스타일, 자연스러운 우아함이라는 Baume & Mercier 고유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Clifton Club GMT: 현대의 여행가

모던하고 세련된 Clifton Club GMT 는 격식을 차려야 할 때나 편안한 자리에서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매 순간 남성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줄 시계입니다. 오토매틱 와인딩 스위스 기계식 무브먼트가 탑재되고 센트럴 핸드로 표시되는 세컨드 타임존 디스플레이와 3시 방향 날짜창을 갖춘 이 새로운 모델은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크라운 보호장치를 갖춘 42mm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모든 남성의 손목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또한 10.6mm의 두께를 자랑하는 Clifton Club GMT 시계는 셔츠 소매 안으로 가뿐히 들어가 진중하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세컨드 타임존의 시간은 센트럴 핸드와 아주르 딥 블루 컬러의 알루미늄 베젤에 새겨진 24시간 눈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컴플리케이션인 세컨드 타임존 디스플레이는 여행지 현지 시간과 자국의 시간을 직관적이며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모던함과 클래식함이 공존하는 시계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치는 부분 없이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완성합니다. 탁월한 성능을 짐작하게 하는 스크루 다운 크라운과 오팔린 블랙 다이얼은 세련된 멋을 자아내며 시계의 스포티한 면모를 더욱 강조해 줍니다. 한편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시침과 분침을 비롯하여 12시 방향에 위치한 Phi 로고에는 푸른 빛을 발하는 화이트 수퍼루미노바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Clifton Club GMT 에는 반사 방지 처리한 스크래치 프루프 사파이어 글래스와 Clifton Club 문장이 장식된 스크루 다운 케이스 백이 장착되는데, 이 덕분에 시계는 10ATM(수심 100미터)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Clifton Club GMT 는 두 가지 종류의 스트랩이 장착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러버라이즈드 블루 송아지 가죽 소재로 안감 처리한 세일 캔버스 모티프 "All Road"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 그리고 3열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 이렇게



BAUME & MERCIER

MAISON D'HORLOGERIE GENEVE 1830

두 개의 스트랩에는 모두 조절 가능한 삼중 폴딩 버클이 장착되며, 버클 측면에 있는 두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푸쉬버튼을 조작해 시계를 더욱 안전하게 고정하고 손쉽게 버클을 풀 수 있습니다. Baume & Mercier의 Clifton Club GMT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갖춘 다기능 시계를 원하는 현대의 여행가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Clifton Club Bronze: 스타일을 위한 컬러

Baume & Mercier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시계를 선보이는 Clifton Club 컬렉션을 통해 사무실이나 휴양지, 피트니스 센터, 혹은 중요한 만남 등 언제 어디서나 착용할 수 있는 시계를 제안합니다.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던 Clifton Club 시계는 올해 독특한 네오레트로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론즈 버전으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네 가지 다이얼(블랙, 초콜릿, 블루, 그린)로 만나볼 수 있는 이 브론즈 모델은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스포티한 감성을 오롯이 전달합니다. 또한 브론즈 케이스 시계라는 트렌드를 따르는 동시에 우아함과 스포티함의 조화, 기능성, 편안한 착용감 등 컬렉션을 성공으로 이끈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보편적인 사이즈로 디자인된 이 새로운 Clifton Club의 42mm 무광 브론즈 케이스의 독특한 구릿빛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산화 작용을 거치며 더욱 멋스러운 컬러로 변해 갑니다.

브론즈를 시계 제작에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론즈라는 소재가 마치 살아 있는 듯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자성이 없어 무브먼트의 정밀성을 최대한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브론즈 케이스는 점점 짙어져 갈색을 띠다가 녹색이 자리 잡게 되는데, 공기나 물 또는 햇빛에 노출되면서 다채로운 색조가 나타납니다. 두께 10.3mm에 불과한 이 특별한 케이스의 안에는 분당 28,800 회의 진동수(4Hz)를 자랑하는 '스위스 메이드'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가 뛰고 있습니다. Clifton Club Bronze 고유의 스포티한 매력은 브론즈 스크루 다운 크라운, 단방향 회전 베젤, 10ATM의 방수 기능,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 프루프 사파이어 글래스를 통해서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Clifton Club Bronze는 블랙 다이얼과 러버라이즈드 블루 송아지 가죽 소재로 안감을 더한 세일 캔버스 모티프 "All Road"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 버전(브라운 누백 송아지 가죽 추가 스트랩), 초콜릿 다이얼과 크림 컬러의 탑스티치가 장식된 브라운 누백 송아지 가죽 스트랩 버전(블랙 고무 추가 스트랩), 블루 다이얼과 블루 고무 스트랩 버전, 마지막으로 그린 다이얼과 크림 컬러의 탑스티치가 장식된 브라운 누백 송아지 가죽 스트랩 버전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그린 다이얼 모델에는 러버라이즈드 그린 송아지 가죽으로 안감을 덧댄 블랙 송아지 가죽 소재의 추가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루 다운 케이스백에는 Clifton Club 컬렉션의 혈통을 증명하는 문장이 장식되어 있으며, 각 스트랩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루프와 핀 버클이 장착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모험가의 기질이 조화를 이룬 Clifton Club Bronze 시계는 현대의 남성이 추구하는 다재다능한 위치메이킹의 진수를 보여 주는 모델입니다.



BAUME & MERCIER
MAISON D'HORLOGERIE GENEVE 1830

레퍼런스:

Clifton Club 42mm 오토매틱 GMT: 10486

Clifton Club 42mm 오토매틱 GMT 스틸 스트랩: 10487

Clifton Club 42mm Bronze 오토매틱 블랙 다이얼: 10500

Clifton Club 42mm Bronze 오토매틱 브라운 다이얼: 10501

Clifton Club 42mm Bronze 오토매틱 블루 다이얼: 10502

Clifton Club 42mm Bronze 오토매틱 그린 다이얼: 10503